

# 영화 '동승' 재촬영

## 韓濠 공동투자 5년만에 제작 108동자·108보살 공개모집

해맑은 눈망울과 순수한 천진심을 고스란히 지닌 동승의 모습을 영화에서 만날 수 있다. 제작비 부족과 시나리오 각색 등의 이유로 제작이 중단된 아쉬움을 남겼던 영화 '동승'(주경중 감독)이 5년만에 다시 제작된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좇아 먼 길을 떠나는 동승의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조명한 영화 '동승'은 호주 영화전문제작사인 스펙트럼 필름과 공동투자로 최근 재촬영에 들어갔다.

'동승'은 원래 작가 곽함세씨가 쓴 희곡으로 92년 극단 연

우무대에서 연극으로 만들어져 많은 호평을 받았었다. 이 영화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어린 동승 '도남'과 성숙의 과도기에 놓인 '정심'의 세상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엄한 주지스님의 명령으로 속세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 내려간 두 스님은 술을 먹기도 하고 사창가의 여인에게 유혹되기도 하는 등 속세의 유혹과 힘든 고행과정 사이에서 번민한다. 하지만 갈등이 심화될수록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들어와 결국 구도의 길을 떠난다는 것이 이 영화의 줄

거리다. 스펙트럼 필름 코리아 대표인 통도사 극락암 성본스님이 제작을 맡아 주목을 끌고 있는 영화 '동승'은 특히 수려한 자연경관과 사찰을 철저히 자연광에 의해 촬영해 산사의 사계절을 자연 그대로의 신비로움과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겠다는 것이 제작진의 의도다. 또 섬세한 영상을 통해 한국의 색과 정서를 마음껏 보여줄겠다는 의욕이 차있다.

볼타 연극배우 전무송씨를 비롯해 고정일, 김태진, 오영수 등이 출연하는 이영화는 주연 배우 외에도 영화에 출연할 108명의 동자와 108명의 보살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또 제작에 참여할 108명 주주들의 손길도 기다리고 있다.

광주항쟁을 소재로한 영화 '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좇아 고행을 떠나는 영화 '동승'이 촬영에 들어갔다. 내년 초파일 개봉예정.

활의 노래'를 제작했던 주경중 감독은 "3년동안 전국 1백여 사찰을 돌아본 후 안동 봉정사와 순천 선암사를 최적의 촬영 장소로 결정했다"며 "사찰의 수려한 경관을 최대한 살려 연극에서 보여주지 못한 부분을 영상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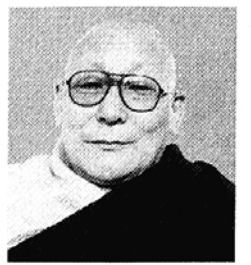
아름답게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영화 '동승'은 12월까지 촬영을 마치고 호주에서의 후반 편집 작업을 거쳐 내년 부처님 오신날 개봉할 예정이다. (02)929-1070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 인사

## 티벳 최고탕카화가 상계에서 스님 "탕카는 명상의 산물이죠"

"티벳불교의 탕카(Thangka)는 예배의 대상입니다. 탕카를 보며 '예술품' '문화재' 등을 운운하는 것은 사된 본별심이지요."

한국의 불화를 직접 보고자 10월18일 방한한 티벳 최고의 탕카화가 상계에서(76·결로파) 스님은 티벳불교 전문박물관인 화정박물관에서 관람객들에게 탕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1959년 달라이 라마와 함께 인도 망명을 결행했던 스님은 이듬해 인도 다람살라에 '왕립 티벳전통수원'을 개원하고 지금까지 수백여명의 탕카 화가를 길러낸 인물.

"탕카는 명상의 산물로 볼 수 있습니다. 명상에 몰입한 고대의 스님들이 친견한 신(神)의 모습을 약크의 가족에 그리게 탕카의 기원이죠. 이 탕카들이 아시아 불교 국가에 전해지면서 또다른 불화(佛畵)들이 생겨났습니다."

'명화'는 티벳어 '탕카'의 한역음으로, 탕화가 티벳에서 전해졌

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티벳, 일본, 중국 등 외국의 학자들은 티벳 화승들로부터 고려에 탕화가 전해졌다는 추정을 하고 있다.

상계에서 스님의 이번 방한은 한국의 불화를 열람하고 티벳 탕카와 한국의 탕화 사이의 관계를 체계화하기 위함이다. 스님은 "18일까지 한국인 제자 기산스님과 함께 한국의 전통사찰에 소장된 불화를 보러 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 8-14일 예술의 전당 뮤지컬 '팔만대장경'

불법(佛法)에 의지해 나라를 지키려는 호국 의지와 고려 여성의 강인하고도 깊은 희생 정신이 팔만대장경 조판에 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를 대서사시로 꾸민 뮤지컬 '팔만대장경'(김의경작·이종훈연출)이 8일부터 14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공

연된다. 소프라노 김원정씨를 비롯해 바리톤 여연구 등 50여명의 성악가가 출연하는 이 뮤지컬은 클래식 작곡가 김선하씨가 쓴 곡을 미국 브로드웨이 출신 음악가 조지프 베이커가 편곡해 동서양 음악의 진수를 맛보게 한다. (본지 238호 7면 참조)

극단측은 2000~2003년 일본 아리엔티나 영국 프랑스 미국 등 10여개국 해외공연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02)762-6194

## 안산시민 불교예술제 열린다

### 11일 영산재로 시작 성대한 잔치될듯



불교 공과를 초월한 예술제인 '제4회 안산시민을 위한 불교예술제'가 오는 11일 올림피아기념국민생활관에서 열린다.

안산불교연합회(회장 지허·천수사)가 주최하는 불교예술제는 안산 소재 15개 사찰,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 7시 일운스님(봉인사·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전수교육보조자)의 영산재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안산불교연합회장 지허스님은 "불교예술제를 통해 경제 침체로 위축된 시민들의 기운을 돌우고 화합을 도모하며, 일반인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심과 평안심을 심어주는 포교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안산시의 인구는 56만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사찰수는 20여개에 불과하다. 또 젊은층이 밀집돼 있어 유독 기독교세가 우세해 이번 예술제가 불교에 대한 관심을 높일 좋은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안산불교연합회는 이번 예술제 성료에 위해 각 사찰 우바이·우바세로 구성된 안산불교후원협의회를 결성하고, 안산시(시장 박성규)에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 (0345)406-6601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종교예술제의 '종교화합'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대표 장 지덕) 주최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종교예술제 미술제 99.10.26~11.2 예술의전당 대극장 4.5천석

회 대한민국 종교예술제'가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등이 참여한 가운데 2일 예술의전당에서 성료됐다.

미술제·음악제·영화제·학술세미나 등 네 부분으로 진행된 이번 예술제에서 불교는 오경환씨의 '참승' 등 회화 25점, 영화 '오세암', 국악인 윤소인씨의 가야금 명창 '연꽃 향기 누리 가득히' 등을 선보였다. 또 도법스님(실상사 주지)이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학술세미나에서 '전통사상과 한국종교' '새 천년 새문화 창조와 종교인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사진은 10월26일 열린 종교미술제 개막식에서 원택·인국·운덕스님 등 불교계 대표들과 박지현문화부장관이 테이프 커팅하는 모습.

### 문화 단신

#### 강화 선원사터서 탄생불 발굴

강화 선원면 선원사터(사적 제259호)에서 부처님이 탄생하는 모습을 본뜬 '소형 탄생불'이 발굴됐다. 동국대박물관(관장 장충식)은 10월 26일 지도위원회 회의를 갖고 높이 8.2cm, 폭 3.5cm 소형 탄생불, 산스크리트어 무늬를 새긴 막새등을 공개했다. 동국대박물관은 △전형적인 사찰 건물 배치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금당지로 추정되는 곳이 발굴됐고 △연화문 막새류와 방자문 막새같은 유물의 성격 등을 볼 때 이곳이 선원사터임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곳이 일사공결이라는 주장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대구불교문인협 동인지 '녹야원'

대구불교문인협회(회장 백기광)가 동인지 '녹야원'(제3호)을 발간했다. 지난 5월 갑작스레 타계한 수필가 심조섭씨의 문학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이번호에는 심씨의 유고수필 '파발 한 골 매면서' '유언'과 함께 강초선의 추모시 '꽃은 피어서 어디로', 김미영의 '그리워하며', 임병기의 '마흔길 가시란 뜻', 김기하의 '경포대 해수욕장의 모래알' 등이 수록됐다. 또 최정석의 '문학의 사명을 생각한다'와 지준모의 '대각국사의 시 문학적 교류와 작품편린' 등도 소개됐다.

#### 통일서에대전 수상작 발표

민족의 통일과 종교인의 화합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 주최 제3회 대한민국통일서예 공모전에서 임경(교사)씨의 문인화 '묵국(墨國)'이 '국무총리상(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추사체, 한글, 문인화, 전각 등의 분야에서 총 1천338점이 출품된 이번 서예대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묵국'은 역경을 이겨내는 국화의 모습에서 우리 가슴에 차오리진 분단의 아픔을 다스린다는 모티브로 형상화 시켰다. 이외에도 최우수상에 송인도(문화관광부장관상), 유원국·정애영·김양숙·은희백(통일부장관상), 은성옥·이병혁·송종관·김상숙(행정자치부장관상) 등이 선정됐고, 우수상 17명 특별상 5명 특선 123명 입선 343명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작은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되며, 시상식은 18일 오후 2시. (02)736-4846

삼·부·농·산·은·유·기·재·배·약·초·만·을·생·산·하·고·있·습·니·다

##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 무병장수를 바라는 마음 황토삼백초에 의지하십시오...



신묘장구대다라니 150만 독을 지송하고 찾아낸 약초 황토삼백초®... 7년을 정성들여 생산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신주 위신력은 마른 나무 가지에 씌이서 열매가 열리게하기를 바라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실제 끈기는 이다라니로 고지저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라니와 더불어 유기재배한 약초로 효과가 뛰어나도록 하였습니다.



大悟居士(김봉서 원장)

- 이런분들한테 좋습니다.
- 항상 머리가 개운치 않고 뇌가 없으신 분
  -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
  - 간이나 당뇨 혹은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
  - 속이 편치 않으신 분
  - 통변이 시원치 못하신 분
  - 피부미용과 여성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
  - 식수공해가 걱정되시는 분
  - 팔다리가 아프신 분

차나 농사처럼 드시고 자주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황토삼백초는 믿을 수 있습니다. 손님 접대나 선물용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97.11.6 / 99.9.2 MBC-TV 고행은 지공  
99.9.21 KBS-TV 7시 내고향  
99.7.10 SBS-TV '보닌와이드' 방영

**삼부농산**  
SAM BU Farm

경남 거창군 용암면 신촌리 63  
0598-945-0075~7  
http://www.teafarm.com

하루에 한번만 켜주시면 경내에(가정에) 온종일 부처님의 경전말씀이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인켈 inkel 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 불경대전집CD는 인켈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데이터압축기술로 제작되어 일반 CD 30~40장 분량이 한장에 수록되므로 인켈 압축CD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됩니다.

▶ 이 한 장에 56가지 경전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총 27시간 07분)

1. 천수경(14분 05초)	2. 정엄염불(20분 24초)
3. 이미타경(13분 38초)	4. 화엄경 약찬(16분 18초)
5. 반야심경(2분 40초)	6. 고행경(5분 41초)
7. 목탁성(5분 19초)	8. 법상계(2분 40초)
9. 무상계(4분 51초)	10. 관음장진(10분 02초)
11. 금강경(33분 15초)	12. 반회심곡(13분 07초)
13. 천수경(18분 24초)...	35. 우리말아미타경(27분 51초)
36. 우리말 반야심경(4분 00초)...	55. 화심곡(9분 06초)
56. 탑돌이(8분 05초)까지 불자님이 가장 많이 찾고 전하는 56가지 경전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듣고 싶은 경전만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 56가지 경전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 컴퓨터나 가정용 오디오에 연결하면 더욱 웅장한 소리로 경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 및 A/S는 인켈에서 보증합니다.

◆ 보급처 : 법운 총법회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32번지

구입 문의 080-900-0101  
032-343-2267

■주문방법: 전화 및 팩스 등으로 구매하실 상품의 가격을 확인 후 입금하시면 상품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신용카드 할부가능)  
■배달방법: 입금 확인후 택배/오토바이/고속직배 등을 이용하여 5일내 가정까지 배달하여 드립니다. ■입금계좌번호: 서울은행 51304-6100001 (예금주 이희숙)